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집콕 생활이 늘면서 의도치 않게 극장과는 거리두기를 하며 집에서 영화를 보는 사람들이 많다. 또한 작년 오징어게임이 국내외적으로 선풍적인 인기를 끌며 한국 영화, 드라마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추운겨울, 밖은 위험한 요즘 마음도 몸도 따뜻하게 집에서 경북산업보건센터 직원들이 추천하는 영화 한편 보는 건 어떨까?

글 대한산업보건협회 경북센터 환경위생팀 김병수 선임차장

경북산업보건센터 직원들이 추천하는 영화

시카리오 : 암살자의 도시

첫 장면은 미국의 어느 도시, FBI요원이 한 집을 급습하면서 시작된다. 멕시코의 마약 카르텔로부터 납치된 인질을 구출하는 작전이다. 하지만 급습한 현장에 인질은 없고 신원미상의 시신만 엄청나게 발견된다. 곧이어 집안을 수색하던 중 경찰이 마당 창고 바닥에 있는 문을 열자 폭탄이 터지면서 영화는 시작된다.

며칠 후 FBI요원인 주인공 케이트는 상부의 호출로 가게 된 자리에서 CIA요원인 맷을 만나게 되고 카르텔 소탕작전에 합류하게 된다. 이번 사건의 범인을 잡는다는 말에 본인의 분야가 아님에도 자원한 것이다. 사실 FBI와 CIA는 역할이 전혀 다르다. FBI는 미국 본토안에서 합법적인 임무를 수행하는 기관이고, CIA는 미국 본토가 아닌 해외 작전을 수행하는 기관이다. 그렇다면 왜 CIA 작전에 FBI가 함께하는 것일까? 그 해답은 영화 중반 이후에 나온다.

케이트와 맷이 작전을 위해 공군비행장에서 전용기를 타고 이동하는 과정에서 이 영화의 마지막 주인공인 알레한드로가 등장한다. 이들 3명은 미국에서 멕시코로 넘어가게 된다. 목적은 멕시코 마약 카르텔의 주요 간부를 미국으로 호송하는 작전을 수행하기 위함이다. 멕시코 경찰의 호위를 받으며, 국경을 넘어오게 되는데 교통량의 증가로 길이 막힌다. 불안한 케이트는 주위를 둘러보게 되는데, 수상한 차량이 여럿

보이게 된다. 곧 교전을 준비하는 케이트와 알레한드로. 당연히 케이트는 아무 문제없이 국경을 무사히 통과하길 바라지만, 영화는 그렇지 않다. 왜냐하면 관객들이 용납하지 않을테니까.

그렇게 아주 짧은 한바탕 총격전이 끝나고 무사히 미국 내 기지로 돌아와 알레한드로는 호송해 온 간부를 물고문 한다. 그렇게 해서 얻은 정보를 이용해서 마약 카르텔을 서서히 압박해 간다. 케이트는 합법적인 방법으로 수사하자고 하지만, 맷은 그럴 뜻이 전혀 없어 보인다. 상부에 보고도 해보지만, 돌아오는 답변도 매 한가지다. 카르텔 간부 한명을 기소해도 여전히 카르텔은 건재할 것이고, 오히려 자극만 주는 것이라며 이 참에 비합법적인 방법으로 카르텔 조직 자체를 일망타진 할 계획을 세운다는 것이다.

케이트는 충격을 먹고 동료와 술집으로 향한다. 여기서 현직 경찰을 만나서 합석 후 집까지 동행하게 된다. 집으로 돌아온 후 현직 경찰이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내는데 그 순간 케이트의 눈빛이 흔들린다. 왜 슬픈 예감은 틀린 적이 없을까? 그 후 둘의 몸싸움이 시작되고 절체절명의 위기 순간에 알레한드로가 집안으로 들어와서 케이트를 구해주게 된다. 알레한드로는 어떻게 알고 케이트를 구해준 것일까?

또 다시 현직경찰을 고문해서 카르텔에 매수된 경찰과 밀수로 이용하는 땅굴의 위치를 알아낸다. 땅굴을 공격하면 중간 간부가 최종 보스를 찾아가게 될 것을 직감하고 작전을 수행하게 된다. 땅굴에서 총격전이 일어나지만, 유독 한 사람, 알레한드로는 다른 길로 빠져나가는 것을 보고 케이트는 평소 의심스러웠던 알레한드로를 뒤따라가게 된다. 여기서 영화의 후반부가 시작된다.

영화 포스트를 보면 이런 문구가 보인다. “하나의 작전, 서로 다른 목표.” 그렇다. 케이트와 맷과 알레한드로는 한 팀이지만, 서로의 목표는 다르다. 이 영화는 배경음악도 거의 없이 흘러간다. 아니 굉장히 단순한 음악만 있는데 영화와 잘 어울린다. 장르는 범죄, 드리마, 스릴러다. 범죄 드라마에 스릴이 가미된 영화다. 2편도 나왔지만, 형만한 아우 없다는 얘기처럼 다소 아쉽다. 끝으로 난 이 영화를 혼자 보는 것을 추천한다. 혼자 보게 되면 이 영화가 주는 스릴을 더욱 만끽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